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namnaum

법공양 페이지

“정신계와 물질계 맞물려 돌아가니...”

17면에서 계속

하고 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겁이 안나더라고요. 그땐 밤에 산 속에 있어서 어떤게 나와서 나를 해치거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없었지요. 버섯따러 다닐 때 보면 나뭇잎이 수북이 쌓인 곳에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버섯이 꼭 그 안에 있어요. 까리버섯 같은 경우는 아주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그걸 따려면 그래요. ‘난 너 모습 보기 싫어. 좀 보이지 않게 할 순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길다르게 늘리고 가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 고개를 넘어가려면 철칙이 따라야 합니다. 아랫사람이라고 낮게 보지 말고 웃사람이라고 높이 보지도 말고, 섬섬하게 하지 말고 아프게

고 잡아먹히고 이리저리 사람으로 올라오면 사람의 고깃덩어리 먹지 않는 대신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참 묘한 법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서산대사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서산대사의 마음이 새 마음에서 들어가서 새가 내려오고 싶으니까 내려왔다 이겁니다. 돌이 아닌 까닭입니다.

조금 전에 살생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관하는 도리도 모르고 자기 아닌 자기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그냥 살생이 되고 업보가 됩니다. 그렇지만 들고 나는 것이 다 한자리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나쁜 게 나오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좋은 게 나오면 ‘감사

지가 있다 해도 마음 자리에서 다른 길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켜주고 보디가드가 돼 주는 거예요.

어떤 신도가 와서 말하기를 집을 비우면서 ‘주인공, 나는 지금 급해서 나가야 하니까 집에 도둑 안들게 지켜줘’ 하고선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돌아와보니 문은 열렸는데 없어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지켜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데서 철칙을 들고 ‘너 죽여버린다’ 하고 와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거기서 지키게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지키게 하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걸로 지키게 하는 것이죠. 항상 돌이 아니니까 말

없어. 그 기계도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고. 그러니 모두가 주인공과 돌이 아니고 당신과 돌이 아니니, 즉 말하자면 주인을 지켜줘라. 제각각 다 주인이라고 하고 주인공에 맡기고 당신은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 수금도 잘되고 기계도 고장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보가, 수많은 차원의 업보가 다 있지만, 그것을 없애는 도리가 바로 과거의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기다 되입력을 해서 앞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팔자명도 불지 않고 살생도 불지 않고 업보도 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게 많고 지은

폭 상을 차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딱하고 과일, 물, 향, 초 이렇게 놓고서 형편이 되면 꽃이라도 하나 사다놓고 재를 지내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모르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대승의 도리로 훌쩍 넘어섰다면 길에 다니다가도 상황을 봐서 급하면 그 자리에서도 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하는 줄도 모르겠지만 자기는 뜻밖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진화되는 것도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알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연이 돼서 좋은 인연으로 이 다음에 또 만나게 되죠.

그러니 그걸로 천도를 해달라고 왔

그 길래 가만히 그 사탕 봉지를 들고 봤습니다. 그 사탕 속에서 뭐가 비치느냐 하면 말이예요. 그 대령이란 사람의 어머니가 이복에서 말입니다. 6·25사변이 일어났을 때 치마를 덮어쓴 채로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치마를 덮어쓴 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령은 뭘 왜 그리 살려달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10년 동안 치마를 덮어쓰는 흉내를 내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살림고 애들이고 아무것도 돌볼 수가 없었단다. 병고쳐보겠다고 집도 팔고 돈도 다 썼는데 낫지 않고 있으니 사탕 한 봉지 사달라고 하면 산중열 올라온 거예요. 이젠 아이들도 못키우고 돈도 한 톨 없잖아 그러면서 울면서 사탕 한 봉지를 내놓는데 그 사탕 속에서 그 대령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자식 살리느라 부모가 그렇게 죽었으니 그것을 어떡하우. 죽은 부모가 이 도리를 안다면 자기도 벗어나고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천도를 해달라고 똑같이 머느리한테 왔는데 그걸 대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했더니 그 발발 펴고 그러던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그건 사탕 한 봉지가 아니에요, 마음 이죠.

일체제불의 마음이 바로 자기의 마음과 찰나찰나 나투면서 통신이 되니까 자기가 한 것도 없고 그쪽에서 없던 것도 없는 겁니다. 가계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다면 주고 받은 사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나는 얘기죠. 그 이후로 그 사람은 애들 다

남이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님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래서 요즘 ‘지장보살님이 문고릴 잡고서 다 들여보내고 내가 들어갈려고 그랬는데 풀이 없구나’ 이랬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게 참 이해가 가고 그렇게 풀이 없는게 바로 진리라는 생각이 됐어요.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도 사람의 도리를 다 지키지 못하면 하천세계로 떨어져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사람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받길로 채워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 상세계로 오르느냐 중세계에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문제도 자기가 산 것대로 아주 철저히요. 살면서 모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마음 도리를 공부하신다면 그게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유인의 사람이죠. 뭐 하고 달함도 없는 이 마음공부! 생활이 끝 교재임을 알고 생활 속에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마음으로 시자로서 뭐고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요. 좀살 하나에 이 우주 전체가 다 들어간다 해도 그릇이 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쫓살 하나가 들어간다고도 크지 않을 겁니다. 또 사람이 살다보면 병을 앓게 될 때도 있는데 참 그것처럼 의욕이 없어지는 일도 없습니까. 나는 지금껏 여러분이 아파서 올 때 ‘내 몸은 좀 건강하게, 아프지 않도록 해줘.’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내 몸이 아파봐서 아파서 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한마음으로 적응이 되고 나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 와서 이르더군요. “스님, 어떤 까닭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포기하고 내보내 저를 수술을 해 주셨습니까?’ 수술을 해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스님이 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당신 주인공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 주인공이 너무 안타깝게 간질히 부르고 안타깝게 말하고 안타깝게 슬퍼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당신 마음한테 같이 떠났어 아니에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꿈이지만 역력하게 요만한 칼을 들고선 필요만한 걸 하나 꺼내더니 ‘이제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우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만 위해서 안 아프게 하고 또는 속지법을 쓴다거나 자기 몸을 감추었다 나타냈다는 신통을 함부로 쓴다면 그것은 편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뿐이지 정법이 아니라 애깁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타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꺾어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통 사람처럼 그냥 편안히 누워서 열반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물질세계를 부정해도 안되고 정신세계를 부정해도 안됩니다. 둘 다 함께 항상 수레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찌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자체를 심성과학(心性科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밥이 조금 될 듯하면 김치를 넣고 볶아서 먹기도 하죠?

그것도 과학이에요. 천차만별로 생각하고 천차만별로 연구하고,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만 연구에 속하거든요. 모두가 그렇죠. 자기의 개성에 맞게 자기의 환경에 맞게 그 용도를 정하는 것, 즉 그것이 과학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심성과학을 가르치셨지 이름이나 형상이나 고깃덩어리에도 빌라고 가르치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나를 보고 질을 하셨지만 내가 위대하고 높아서 아닙니다. 또 나한테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각자 자부처로서 자삼보(自三寶)에 귀의한 것이죠. 과거도 자기가 살아왔고 미래도 살 것이고 또 돌아와서 현재도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요. 이 도리를 한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길 가끔 하죠. 만약에 자장면을 먹어 본 사람은 ‘그 자장면 맛있더라’ 하고 찾는데 자장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단구요.

그러니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좀 밝고 시원하게 사세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어차피 인생으로 태어났으니 한번은 그 죽는 데 필 인생에 연연해 하십시오. 그 죽는 것 내치지 말고 가는 것 잡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사람이 각자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것, 잊지 마세요.

“내가 누되지 않게하고 부모가 누되지 않게하고 부처님법이 누되지 않게해야 내소임 다하며 사는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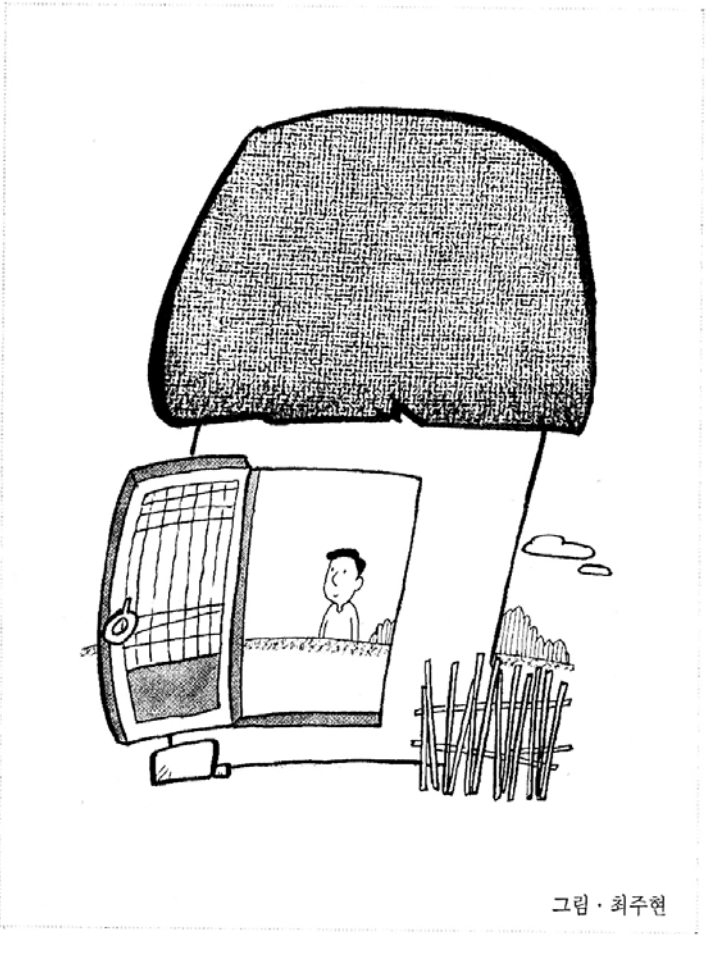
하지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부처님도 자기 모습과 같고, 자기 마음과 같고, 자기 생명과 같이 돌이 아니게 보십시오. 이 마음의 도리는 무한량이라 일배를 올린 다 하더라도 지극하게 한다면 삼천배 올린 것 못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빠르고 빨라서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만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그렇게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초월한다’ 하는 마음, 그것도 이릅니다. 본래 초월하고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道)’라는 것도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계성이나 업보성·세균성·인과성·유전성 이런 것들은 이 몸통이 의식 속에 있다가 차레차레 나오게 되는데, 그런 어떤 물질로도 만들 수 없으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근본 자리를 믿고 ‘모든 걸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놓는다면 그게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정수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찰나에 올라가서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입력이 된 그 자리에 새로운 입력을 하게 되면 앞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한 것이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새로 입력한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팔자나 운명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먹기에 달랐다 이런 뜻입니다.

해’하고 관하게 된다면, 업이 되지 않고 유전이 되지 않고 원한도 없어요. 그런 도리를 몰라서 끝날내 마음에 남아있게 되면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는 부모 속을 썩이고 또 나라에 누가 되게 하고, 자기도 그냥 불꽃없이 쓰러져 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스로 누가 되게 이름을 손상시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자기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려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도와주지를 않으니 그렇게 밖엔 못 사는 거죠. 정신계를 무시하고 바깥의 물질세계로만 치우쳐 생각하는 대로 미구 해버리니까요. 그러나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자기가 에너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으로 한 생각 들릴 때,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에너지가 나가서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는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꾼다 하더라도 못바꾸는 소중한 공부입니다. 이 세상이야 들고 돌면서 찰나찰나 변하고 화해서 나투면서 돌아



그림·최주현

“생활떠나 불법없듯 생활떠나 과학없어”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자”

가는데 뭘 아까워하고 뭘 불쌍하고 할 게 없겠습니까. 나누는 것 아십니까? 나뉘는다는 것은 표현을 할 때 즉 쉽게 말해서 한 발짝 때놓고 나뉘는 한 발짝 없지는 것과 같아요. 찰나찰나 나뉘는 것도요,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이것 들으면 저것 들어야 하고, 일거수 일투족 다 고 정면 해 하나도 없으니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부처 될 가능성은 99%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명이란 것이 나무에 흙 덮인 것처럼 그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과학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든지 또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이나 어부가 고기를 잡는 일이나 각자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전부 과학 아님이 없습니다. 살다보면 좀 어렵고 불편한 건 지혜를 내서 요건 요렇게 하면 더 잘되겠다 하고 바뀌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도 과학입니다. 생활을 떠나서 불법이 따로 없듯이 생활을 떠나서 과학이 따로 없습니다. 불법이나 과학이 어떤 데 있나? 마음없이 살 수 없으니 심성이 어떻게 과학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 도리를 아는 분들은 그저 저절로 보이지 않는 자기 아닌 자기가 물질적인 자기를 이끌어갈게 돼요. 예를 들어 길을 잘못 들어 바로 앞에 낭떠러

집니다. 색깔에 비치는 것도 내 그림자에 불과해서 그 색깔에 내 모습을 비치게 하는 눈도 그눈이고, 보는 눈도 그눈입니다. 이놈이 하지는 대로 색깔 속에서는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보이는 자기는 안보이는 자기가 하지는 대로 흉내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이 말입니다. 따라서 악이나 선이 다, 잘못하는 거나 잘하는 거나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운전하기에 달려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어느 누가 못살려고 하고 못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될 일과 될 일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변연히 알면서도 살아가는 습과 한생각을 크게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인이 처녀때 발목을 다쳐서 한 10년 정도 무척 고생을 했나봐요. 안 다 너 본 병원원이 애들 많이 써도 낫질 않았는데 여기 와서 관하는 걸 배워가더니 자기 주인공에 대해서 제 뿌리를 얼마나 진실하게 불리고 믿었던지 차츰 낫게 되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을 해줘도 영 수금도 되지 않고 기계도 자주 고장이 나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 공장 안에 기계도 당신이고 직원들도 당신이고 모두가 당신 아님이

되가 많아서 어쩌라 하지만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나온 자리에도 되입력 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다 타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팔자명도 없어지게 된다는 소립니다. 인과성으로 인해서 유전성이 되고, 유전성으로 인해서 업보성이 되고, 업보성으로 인해서 세균성 또는 영계성이 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또 보이는 데서 나와도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 보이는 데서 바로 나와도 모르고, 안보이는 데서 나와서 보이는 데로 다시 나와도 모르니 어떻게 그걸 대치를 해나갑니까. 하지만 형상이나 이름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한다면 그런 공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결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바깥에 비는 것은 도깨비장난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양무제가 아무 리 많은 절을 짓고 불사를 했어도 달마 대사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원주에서 상원사 토굴에 있을 때 얘깁니다. 어느 대령이 와서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아주 뭐 거지랄 하나 안 하고 사람 한 봉지 사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천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도란

공부시키고 잘 사는데 말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니까 그냥 가까운 절에 다녀요. 허, 그래도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그저 내가 그 당시에 나 할 일만 했으면 그만이지 남이 어떻게든 저렇게한 오든 안오든 무슨 말을 하든 그런 상관 없어요. 모두 각자 나 할 도리만 하면 돼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소임을 다 하는 건지 그것을 잘 알면 돼요. 첫째, 내가 누가 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 부모가 누가 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셋째, 부처님 법이 누가 되면 일체가 다 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 자비로써, 불쌍하고 슬퍼서 자기와 돌이 아니게 생각을 해준다면 그게 자비예요. 자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다면 남의 자식이 물에 빠진 것도 내 자식의 아픔과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형성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모두를 거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심안으로 넓게 본다면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

협천 한마음선원